

‘연습벌레’ 오지영 ‘성공신화’

지난 7월 ‘스테이트팜’ 이어 ‘사이베이스’ 정상...LPGA 2승 달성

어려운 가정형편 이겨낸 ‘노력파’ ... 위성미 공동 3위·김인경 5위

오지영(21)이 10개월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에 다시 오르며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갔다.

오지영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 어퍼 몬트클레어 골프장(파72·6천413야드)에서 열린 사이베이스 클래식 마지막날 버디 4개, 보기 2개를 묶어 2타를 줄여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냈다.

공동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했던 오지영은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10언더파 278타)의 추격을 4타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상금 30만달러를 받았다.

오지영은 작년 7월 스테이트팜 클래식 우승 이후 10개월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LPGA 투어 통산 2승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3월 신지애(21·미래에셋)가 HSBC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이후 한국 군단에 시즌 두번째 우승컵을 안겼다.

1998년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우승 장면을 보고 골프채를 잡았다는 오지영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연습에만 몰두한 노력파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든든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오지영은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자전거에 골프채를 싣고 연습장을 오갔고 샌드웨지를 바꾼지 2개월만에 다 닳아 못쓸 정도로 열심히 훈련했다.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어 지난 7월 스테이트팜 클래식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오지영은 올 시즌에는 톱10에 한차례만 들었을 뿐 좀처럼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오지영은 이번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상위권에서 밀려나지 않고 우승 경쟁을 펼치면서 우승을 예감했다.

오지영은 9번홀(파4)에서 세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라지 못해 1타를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린 가장자리에서

퍼터로 친 네번째 샷을 홀에 집어넣으며 파로 막아냈다. 오지영은 10번홀(파4)에서 4라운드 두번째 보기를 적어내기도 했지만 더 이상 타수를 잃지 않자 오히려 페테르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페테르센은 12번홀(파4)에서 파퍼트를 놓친 데 이어 17번(파3)과 18번홀(파5)에서 잇따라 1타씩을 잃어 오지영에게 우승컵을 헌납했다.

오지영은 18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홀 1m에 붙인 뒤 버디 퍼트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갤러리들의 갈채를 받았다.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1타를 잃었지만 8언더파 280타로 폴라 크리머(미국)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시즌 개막전 SBS오픈 준우승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김인경(21·하나금융)은 5위(7언더파 281타), 박희영(22·하나금융)이 공동 6위(6언더파 282타)를 차지해 한국 및 한국계 선수 4명이 톱10에 진입했다. 신지애는 2타를 잃는 바람에 허미정(20·코오롱)과 함께 공동 13위(3언더파 285타)로 대회를 마치고 4년 연속 우승을 노렸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김승희(21) 등과 함께 공동 19위(1언더파 287타)에 머물렀다.



■ LPGA 2승 달성 오지영 인터뷰

“대회 첫날 홀인원을 했을 때 우승 트로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지영은 “작년에 처음 우승했을 때는 경기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경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무덤덤했다”며 웃었다.

오지영은 “마지막날 잡타자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브리타니 린시킴(미국)과 같은 조에 편성됐지만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자신의 경기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지영과 일문일답.

-우승 소감은.

▲대회 1라운드 때 8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했을 때 우승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쇼트게임 연습에 주력했는데 대회내내

“첫날 홀인원 했을 때 우승 예감”

컨디션이 좋았다. 작년 첫 우승 때는 영어로 준비한 인사말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대회 첫날부터 우승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이번에는 영어로 잘 말한 것 같다.

-장타자들과 마지막 라운드에서 대결했는데.

▲페테르센이나 린시킴의 드라이버 비거리가 때때로 300야드나 되는 것 같았다. 내 드라이버 비거리는 240-250야드 정도 나왔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드라이버 비거리는 작년과 비교해 줄었지만 정확성과 안정감을 높였다. 줄어든 비거리는 향상된 아이언샷과 우드샷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

-장타자들과 경기하면 거리에 욕심이 나지 않는가.

▲작년 같았으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도 LPGA 투어 3년차다. 내가 잘 하는 샷에 집중했고 다른 선수의 플레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올해는 후원기업이나 메인스폰서 없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

▲경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경기는 선수가 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큰 불편은 못느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쇼트게임이 좋았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대회가 열린 골프장은 이전의 대회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칩샷과 퍼트 연습을 많이 하면서 집중력을 키웠다.

“LG 너를 이겨야 3위 간다”



KIA 홈서 쌍둥이와 빅매치 ... 야구팬 관심 집중

곽정철·양현종 출격...최희섭·김상현 대포 기대

‘비룡 사냥꾼’ 호랑이와 ‘역전의 명수’ 쌍둥이가 격돌한다.

4위 도약에 이어 승률을 5할로 끌어올린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LG 트윈스와 허어로즈를 무등경기장으로 불러들여 홈 6연전을 치른다.

2009 시즌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 KIA와 LG와의 ‘신바람’ 대결은 야구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KIA와 LG는 지난해 각각 6위와 8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가을잔치에 나서지 못했다.

2009시즌 시작도 좋지 못했다. 뒷심 부족으로 승보다 패를 더 기록하며 허위권에 맴돌던 지난 시즌의 악몽을 재현하는 듯 했다. 하지만 어느새 승풍이 불어오른 KIA는 4위(승률 0.500), 0.5게임차로 앞선 LG는 3위(승률 0.526)를 달리고 있다.

몰라보게 강해진 두 팀은 새로운 별명도 얻었다. 지난해 4승1패로 SK에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던 KIA는 지난 주 문학에서의 주말 3연전에서 15일 12회 짜릿한 역전극을 펼치는 등 2승 1패를 챙기며, 올 시즌 1위 독주중인 SK를 상대로(3승1무2패)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17일 더블헤더 1차전 오심이 아니었다면 1패의 행방도 달랠렸는지 모른다.

또 지난해 한 차례의 영봉패를 당했고, 무려 7번의 경기에서 1점을 뽑는 데 그쳐 SK전에서 빈약한 득점력을 보였던 KIA는 올 시즌 6차례의 대결에서 평균 3.8의 득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5.2점의 실점을 했던 것에 반해 한층 높아진 마운드는 2.8점으로 SK 타선을 봉쇄하며 ‘비룡 사냥꾼’으로 거듭나고 있다.

LG의 기세도 무섭다. 8연승까지 내달렸던 LG는 팀 타율 1위(0.288)의 폭발력을 앞세워 올 시즌 거둔 20승 가운데 11번을 통과한 역전승으로 장식하고 있다. 뒷심 부족

으로 2008시즌 끝까지 독주를 했던 LG의 기막힌 반전이다.

올 시즌 4강 판도를 재편하고 있는 두 팀이 3위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 LG는 3위 수성을 위해 19일 에이스 봉준근을 마운드에 내세웠다. 곽정철로 맞불을 놓은 KIA는 타선의 한 방을 기대하고 있다.

14일 KIA는 대전구장에서 열린 ‘홀런군단’ 한화와의 경기에서 무려 6방의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14-3의 승리를 거두는 등 지난주 6경기에서 13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신인들 첫경험 낫설고 감독은 선수 운용 난감

더블헤더 부활 ... KIA선수단 표정

17일 프로야구 8개 구단 선수들은 오후 내내 그라운드를 뛰어야 했다.

2006년 10월 1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KIA와 롯데전 이후 2년 7개월 만에 더블헤더가 부활하면서 8경기가 하루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날 KIA 선수단의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시작했다. 주말 원정의 경우 오후 2시20분에 숙소를 나서지만 선수단은 오전 11시20분 일찍 짐을 챙겨 경기장으로 향했다.

난생 처음 더블헤더 경기를 앞둔 안치홍·최용규·나지완 등의 신인급 선수들은 상기된 표정이었다만 턱이웃 여기저기에서 불면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급하게 월요일 경기를 도입했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5일 이를 폐지하고 더블헤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발표 이틀 만에 치러진 더블헤더에 선수들은 “쉬는 날 없이 월요일까지 야구를 하는 것보

다 나은 것”과 입을 모으면서도 하루에 두 경기를 치러야 하는 더블헤더는 역시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 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였다.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물론 이를 지켜봐야 하는 코칭스태프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 조범만 감독은 경기전 “1차전 상대팀 에이스가 출전하는데 선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프런트도 더블헤더에 대비해 간식을 챙기는 등 갑작스런 더블헤더에 KIA의 하루는 분주했다.

다행히 이날 두 팀의 경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돼, 휴식 시간 20분을 제외하고 5시간 44분 만에 두 경기가 모두 마무리 됐다.

태어나서 처음 더블헤더를 경험한 ‘투키’ 안치홍의 타력소속에 1승 1패를 챙긴 KIA는 경기 후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갓길에 올라, 18일 새벽 1시가 다 돼 갔던 하루를 마감했다.



“우승이 없을 뿐 계속 혁신중 태풍되어 US오픈 몰아칠것”

‘디펜딩 챔피언’ 최경주 SK텔레콤 오픈 출전

최경주(39·나이키골프)에게 ‘태풍’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체중 감량 이후 찾아온 후유증 때문에 성적이 부진한 위기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이 태풍이 되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휘젓게 될 기회를 뜻한다.

21일 개막하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18일 귀국한 최경주는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풍을 일으키기 위해 샷을 가다듬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작년 시즌 동안 체중 감량을 감행한 최경주는 올해 12개 대회에 출전, 우승없이 톱10에 한번 진입하는데 그쳤다.

최경주는 “체중 감량 이후 몸 속에 지방이 없어지면서 허리 근육이 뭉치고 통증이 왔다. 지금도 약물과 침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몸상태를 설명했다.

최경주는 “통증만 사라지면 한층 발전된 스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임팩트 때 불에 힘을 실지 못하고 있지만 스윙만 완성

되면 한 치원 달라진 샷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또 “현재는 어프로치샷이 길었던데, 짧았던 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린 위에서 라인을 잘못 읽는 실수도 하고 있다”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과감한 샷을 날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태풍을 일으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최경주는 “그 태풍이 몰아칠 날이 US오픈대회가 될 수도 있다”며 메이저대회 정복의 꿈을 숨기지 않았다.

변화를 추구하는 최경주는 올 시즌 골프채를 바꿔 적응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SK텔레콤오픈에서는 작년 우승 때 사용했던 채를 다시 꺼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 위기로 침체된 한국골프를 위해 초정무 없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정만원 SK텔레콤 사장과 함께 결사투쟁을 위해 싸달라며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에게 기금을 전달했다.